

글쓰기 작업이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엔 많은 사람이 글 작성이나 이미지 제작에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도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 보면 최신 AI 기술에 의존하고픈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보고서나 과제물을 작성할 때 AI 없이는 단 한 줄도 쓰지 못하겠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AI 활용은 비단 글쓰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림과 영상은 물론,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물이 생성형 AI를 통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해 보이지만, 편의성과 효율성만 극대화하는 방식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할지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또 어떨까요? AI 기술이 내재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안전과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활용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터>를 보고 계시는 한노보연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노보연 선전위원회에서 조금은 특별한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10월 17일 <활동가를 위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기획 강좌를 한노보연 서울 사무실에서 엽니다. 이번 기획 강좌는 AI 도구의 이용에 관해 사회운동이 공유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일지, 활동가나 회원 개인의 판단을 넘어 조직 차원에서 함께 점검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선착순 열 분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인원이 차면 신청 링크를 닫을 예정입니다.)

<https://bit.ly/선전위기획강좌>

